

어제 올린 학교 꽃구경 사진과 영상에 이은 2022년 4월 8일 석촌호수 꽃구경 사진. 이날 사람이 정말 많았다. 같이 갔던 친구와 저녁 먹으려고 주변 식당을 찾아보니 대부분의 식당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다. 그래도 어찌어찌 웨이팅이 비교적 짧은 식당에 가긴 했다. '인싸의 삶이란 쉽지 않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호수위의 피아노에는 누구나 와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 같았다. 꽤 멀리까지 퍼지는 피아노 소리가 참 듣기 좋았던 기억이 난다.